

아이돌보미 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영란¹⁾ · 박선남²⁾ · 주민선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도시화를 이끌었고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 및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구조, 기능과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30년간의 지속적인 핵가족화와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가족세대의 구성이 단순화되었다(Statistics Korea, 2010).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함께 가계의 계승에 대한 가치관이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단순화되는 가족의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경향을 보이고 있다(Hantrais, 2004). 이에 따른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었고 아동유기와 방임 및 자기보호아동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5~29세가 가장 높고, 결혼과 육아 등으로 30~39세는 크게 감소하였다가 40대 초반부터 다시 증가하며 50~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2000년에 비해 7.0% 증가하였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패턴을 보이는 것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가피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이러한 특성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돌봄제도의 개발과 지원이 현 사회에서 필요시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법률과 정책 하에 가족의 구조 및 기능변화에 따른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6년 시범사업 이후 2007년에는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실시되었고 2009년 이후 전국적으로 232개 사군·구로 확대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최소 50%이하와 최저 100%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아이돌보미는 이러한 사업에 따른 신규직업군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을 기반 하에 가정 내 아동의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조력자로서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지킴이로서 보육 등을 제공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2006년 아이돌봄 지원시범사업 이후 중·장년여성의 고용이 촉진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 비용을 지불하는 공적인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YWCA와 같은 비영리단체 육아인력 지원사업 및 일부의 영리단체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2009년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아이돌보미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Headquarters for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200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양육부담과 양육스트레스가 감소가 만족도 향상의 주된 요인이다(Lee & Kim, 2011). 이용자 중심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요어 : 아이돌보미, 건강상태, 우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1)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2)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E-mail: nam4868@naver.com)

3)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교수

투고일: 2014년 2월 27일 수정일: 2014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4월 25일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연구와 사업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 연구 중심이었다. 돌봄 제공의 주체인 아이돌보미에 대한 연구는 아이돌보미의 돌봄경험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조사(Lee & Chung, 2012) 정도로 매우 부족하고, 양적인 서비스의 양적 확대 뿐 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제공자의 질적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직무와 관련된 질적 능력 향상의 중요 지표인 직무만족은 스스로 일에 대해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직무만족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며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이돌보미의 직무만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Jang & Lee, 2009). Byun, Kang과 Chung (2007)은 아이돌보미 여성이 취업에서 얻는 경제적 이점과 더불어 보람,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Hwang과 Yun (2012)은 보수와 인간관계가 아이돌보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Jung과 Kim (2013)은 직업으로서의 아이돌보미가 직무 불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심리적 불안정과 여가시간의 부족을 호소하는데 이것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Lee와 Chung (2012)은 아이돌봄 경험에 대한 의미분석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폄하된 인식’, ‘돌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 내의 불결함’, ‘돌봄의 주체가 아님으로 인한 불편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고하였으며, 스트레스와 우울은 심리적 불안정과 관련이 있는 대표 변인이었다(Lee et al., 2011).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었고(Bang, Chae, & Park, 2011),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이 증가되었다(Song & Son, 2011). 이에 본 연구자들은 기존의 아이돌보미에 관한 선행연구가 정책연구와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선행연구에서 지각한 건강상태가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과 스트레스 간에 상관성이 높고 우울과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불안정에 관련이 있다고 볼 때, 돌봄 서비스의 주체인 아이돌보미 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건강지원센터와 비영리 및 영리단체가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도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여성이 아동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및 발달하며 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되는 양질의 인프라 확충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 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아이돌보미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아이돌보미 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및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C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는 아이돌보미 여성과 비영리단체인 YWCA의 육아인력지원사업에 등록된 아이돌보미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를 기준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에 따라 독립변수 3개를 포함하여 산출한 최소 표본 수는 119명이었다. 총 16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16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이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6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5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 지각된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1956)에서 개발한 지각된 건강상태 측정도구(Health Self Rating Scale)를 Kim과 Park (1997)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이 평가하는 현재의 건강상태 1문항, 1년 전과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1문항, 일하면서 느끼는 건강상태의 문제를 평가하는 1문항, 동년배와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1문항,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에서 3문항

은 3점 척도, 1문항은 5점 척도로 하여 최저 4점에서 최고 14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Park (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74$ 였다.

● 우울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30개 문항의 노인우울척도를 Jung 등(1997)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예', '아니오'로 답하는 양분 척도로써 '예'를 1점, '아니오'를 0점으로 하였으며 역문항은 역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14~18점은 경계선 수준 및 정도의 우울증, 19~21점은 중등도의 우울증, 22점 이상은 심도의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Jung, Kwak, Shin, Lee, Lee, & Kim, 1997). Yesavage (1983)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 $\alpha=0.94$, Jung 등 (1997)의 표준화 도구의 내적일치도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7$ 이었다.

●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최근 1개월 동안 느낀 주관적 직무스트레스를 0점에서 10점으로 구분된 선위에 직접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시각적 유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이하 V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점수에서 '0점'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고 '10점'으로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며, '10점'은 극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간호를 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측정에 사용한 Yoo (2012)의 총 21문항(업무 자체 11문항, 대인관계 5문항, 이직에 관한 5문항)의 도구 중 업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11문항만을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도 측정에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1점에서 최고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 (2012) 연구에서는 전체 도구에 대해 Cronbach $\alpha=0.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0.95$ 이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7월 6일부터 2013년 9월 26일까지이며, 자료수집은 서울시 C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시 YWCA에 등록된 아이돌보미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이 참석하는 각 기관의 월례회의에서 연구의 목

적 및 연구 참여의 자율성을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결과를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활용할 것 및 설문지의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연구 참여에 구두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설문지와 서면동의서를 배포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직무만족도와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55.8세로 50대가 97명(65.1%)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5명(23.5%), 40대는 17명(11.4%)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94명(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이상이 44명(28.8%)이었다<Table 1>.

급여수준에서 '낮음'에 응답한 사람은 128명(8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당' 23명(15.1%), '높음'에 응답한 사람은 1명(0.7%)이었다. 아이돌보미의 활동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59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발전이 37명(24.2%)을 차지했으며, 사회참여는 29명(19.0%), 용돈마련은 28명(18.3%)순이었다. 아이돌보미의 활동기간은 3년 이상이 102명(67.1%)으로 3년 미만의 50명(32.9%)보다 많았으며, 아이 1명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85명(56.7%)으로 2명 이상의 65명(43.3%)보다 많았다. 서비스 제공 아이의 나이는 취학 전 아동 이하가 140명(94.0%), 초등생이 9명(5.8%)이었으며, 일주일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일 수는 5일 이상이 137명(91.9%), 4일 이하가 12명(8.1%)이었다<Table 1>.

아이돌보미 여성의 운동 횟수는 일주일에 2~3회가 50명(33.1%)으로 가장 많았으며 4회 이상이 37명(24.5%),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40명(26.5%)이었다. 운동종류는 빠른 걷기

<Table 1> 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Providers

(N=154)

Variable	Categories	n(%)
Age(yr)	40~49	17(11.4)
	50~59	97(65.1)
	≥60	35(23.5)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15(9.8)
	High school	94(61.4)
	≥College	44(28.8)
Income level	High	1(0.7)
	Medium	23(15.1)
	Low	128(84.2)
Work's motivation	Living	59(38.5)
	Pocket money	28(18.3)
	Social participation	29(19.0)
	Self development	37(24.2)
Career(yr)	<3	50(32.9)
	≥3	102(67.1)
Number of child	1	85(56.7)
	≥2	65(43.3)
Child age(yr)	1~7	140(94.0)
	8~12	9(5.8)
Working day per week	1~4	12(8.1)
	5~7	137(91.9)
Exercise time per week	1	24(15.9)
	2~3	50(33.1)
	≥4	37(24.5)
	None	40(26.5)
Exercise type	Speed-walking	90(73.2)
	Swimming	5(4.1)
	Health	10(8.1)
	Yoga	8(6.5)
	Others	10(8.1)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disease in 6 months	Yes	60(39.5)
	No	92(60.5)
Hospital visit in 1 year	Yes	80(53.7)
	No	69(46.3)
Diagnosis*	Yes	90(60.8)
	Arthritis	21
	Diabetes mellitus	6
	Hypertension	26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34
	Uterine cancer	2
	Breast cancer	1
	Others	31
	No	58(39.2)
Pain*	Yes	111(74.5)
	Neck	17
	Shoulder	54
	Arm	42
	Waist	64
	Leg	32
	No	38(25.5)

Except non-response

* Include multi-response

가 90명(73.2%)으로 가장 높았고, 헬스 10명(8.1%), 기타 10명(8.1%), 요가 8명(6.5%), 수영은 5명(4.1%)이었다. 운동 종류의 기타에는 자전거, 줄넘기, 댄스스포츠, 볼링으로 각 1명(0.7%)씩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를 업거나 안아 올리는 등의 아이돌보미 업무와 대상자의 근골격계 건강상태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어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질병 유무를 확인한 결과, 대상자 중에서 최근 6개월 동안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경험 유무에 대해서 '없다'에 응답한 사람이 92명(60.5%)이었고, 1년간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험유무에서는 '있다'에 응답한 사람이 80명(53.7%)이었으며, 진단된 질병이 있는 사람이 90명(60.8%)이었다. 진단 받은 질병은 허리디스크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1명, 고혈압 26명, 관절염 21명 등이었다. 질병의 기타에는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위암, 위염, 갑상선암, 협심증,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이 있었다. 통증 유무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1명(74.5%)을 차지했고, 통증을 느낀 부위는 허리가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깨 54명, 팔/손 42명, 다리/발 32명, 목 17명 순이었다<Table 1>.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아이돌보미 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최저 4점에서 최고 14점 만점 중 평균 9.71±1.79(5~14)점이었으며 우울은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 만점 중 평균 9.34±6.00(0~27)점이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10점 만점 중 평균 3.61±2.31(0~9)점이었으며 직무만족도는 55점 만점 중 44.92±8.74(12~55)이었다 <Table 2>.

<Table 2> Age, Perceived Health Status, Depressi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N=154)

	M±SD	Range
Age(years)	55.8 ±5.3	41~71
Perceived health status	9.71±1.79	5~14
Depression	9.34±6.00	0~27
Job stress	3.61±2.31	0~9
Job satisfaction	44.92±8.74	12~55

<Table 3>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by 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N=154)

Variable	Categories	M±SD	t/F	p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47.45± 7.89	0.821	.442
	High school	45.09± 8.78		
	≥ College	43.78± 8.97		
Income level	High	-	0.762	.384
	Medium	46.48±10.45		
	Low	44.66± 8.45		
Work's motivation	Living	44.22± 8.22	2.414	.069
	Pocket money	43.24± 7.69		
	Social participation	43.64±10.97		
	Self development	48.32± 7.58		
Career (yr)	<3	42.96±10.18	1.650	.103
	≥3	45.80± 7.90		
Number of child	1	44.54± 9.52	0.537	.592
	≥2	45.35± 7.59		
Child age(yr)	1~7	44.88± 8.85	0.431	.667
	8~12	43.50± 7.37		
Working day per week	1~4	42.91± 7.88	0.798	.426
	5~7	45.11± 8.84		
Exercise time per week	1	45.04± 8.40	0.108	.955
	2~3	44.98± 9.56		
	≥4	45.41± 8.79		
	None	44.24± 8.34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disease in 6 months	Yes	43.90± 8.73	1.068	.287
	No	45.51± 8.79		
Hospital visit in 1 year	Yes	45.15± 9.00	0.369	.713
	No	44.60± 8.42		
Diagnosis	Yes	44.11± 8.44	0.938	.350
	No	45.56± 9.31		
Pain	Yes	44.31± 9.13	1.218	.225
	No	46.40± 7.58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아이돌보미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이돌보미의 활동이유 중 자기발전이 48.32±7.58점으로, 생계비 마련 44.22±8.22점, 사회참여 43.64±10.97점, 용돈마련 43.24±7.69점보다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학력, 급여수준, 경력, 돌보는 아이 수, 돌보는 아이의 나이, 근무 일수, 근골격계 치료 유무, 질병의 진단 유무, 통증 유무 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서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직무만족도와 제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을수록($r=.272, p=.001$), 우울이 낮을수록($r=-.325, p<.001$),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r=-.483, p<.001$) 직무만족도가 높았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the Major Variables with Job Satisfaction (N=154)

	Job satisfaction $r(\rho)$
Perceived health status	.272(.001)
Depression	-.325(<.001)
Job stress	-.483(<.001)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의수준 5% 이내의 유의한 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입력방식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위 분석을 시행하기 전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산포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0을 중심으로 직사각형의 분포를 이루고 있어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과 등분산성의 가정을 충족하였으며, 히스토그램과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를 검증한 결과 잔차의 정규분포와 등분산

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자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Durban-Watson을 검증한 결과 2.139로 2.00에 가까워 오차항의 독립성 및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었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 분산팽창인자,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554-.710으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408-1.806으로 모두 10.0을 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70이상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도를 설명함에 있어 유용한 모형이었으며($F=9.473, p<.001$), 설명력은 24.2%이었다.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났다($\beta=-.425, p<.001$)<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여성이 인지하는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를 확인하고,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이유에 대해 생계비 마련이 59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발전 37명(24.2%), 사회참여 29명(19.0%)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활비에 도움이 되어서(45.4%), 아이들을 좋아해서(31.8%), 전문적인 일을 위해서(13.2%) 활동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Hwang & Yun, 2012). 또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한 Moses (2000)의 연구에서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는 일을 선택한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128명(84.2%)이 급여수준에 대해 ‘낮음’으로 응답하면서도 여전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은 아이돌보는 일을 통하여 경제적인 도움 뿐 아니라 자기 개발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낮은 직업 안정성으로 잦은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Moses, 2000), 아이돌보미 여성들이 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보상이 필요하겠으며, 아이돌봄의 직무가 차세대를 위한 사회적 기여임을

<Table 5>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B	S.E	β	t	ρ	R ²	Adj. R ²	F(ρ)
Constant	39.622	8.603		4.606		.242	.216	9.473
Job stress	-1.554	.351	-.425	-4.434	<.000			(<.001)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이돌봄의 직무가 전문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여성에게 아동의 성장과 성숙 등 직무에 필요한 내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의 나이가 취학 전 이하가 140명(94.0%)으로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를 아동 보육과 관련된 다른 직종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논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이 평균 55.8세로 대부분이 중년층인데 반하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Na, Gu, & Park, 2013)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1.3세로 나타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겠다. 보육교사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연구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21.7%로 높게 나타났는데(Na, Gu, & Park, 2013), 이는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안거나 들어 올리는 행동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손목과 허리, 무릎 등에 무리가 되기 때문으로 근골격계 질환은 보육교사의 직무와 연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Koo, 2007). 본 연구 결과에서도 대상자의 39.5%가 최근 6개월 동안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교사와 같이 아동 보육과 관련된 직무와 연관되어 이해할 수 있겠다. 즉 아이돌보미 여성의 활동 내용이 주로 아동과의 놀이, 식사 및 간식 챙기기, 안전 및 신변보호 등(Hwang & Yun, 2012) 신체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무리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아이돌보미 여성의 대다수가 중년임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환이 더 쉽게 유발하고 상태가 중증으로 이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증진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겠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14점 만점에서 9.7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에 해당되었다. 지각된 건강상태에 대한 문헌에서 각각의 측정도구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점수의 비교보다는 그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겠다. 현재의 건강상태와 동년배와 건강상태를 비교하여 총점으로 측정된 Park (2002)의 기혼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측정된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10점 만점에서 6.34점으로 보고되었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측정된 건강지각 연구에서(Koo, 2007) 총 7문항의 건강지각에 대한 평균평점 4점 만점에서 2.50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측정된 지각된 건강상태를 11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2.6점으로 보고되어서(Shin, Choi, & Kim, 2001), 본 연구의 아이돌보미 여성이 보통이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5.8세로 기혼중년여성 40대(Park, 2002), 보육교사 25세~30세(Koo, 2007), 여성 가장 평균 42세(Shin, et al., 2001) 보다 연령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유사하였다. 이는 아이돌보미 여성은 연령이 높음에도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90명(60.8%)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111명(74.5%)에서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각된 건강상태가 실제의 건강상태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소홀하게 되므로(Duffly, 1995), 아이돌보미 여성의 지속적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되며,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30점 중 9.3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우울 점수 40점 중 8.37점(Hong & Jung, 2013)에 비하여 높았다. 가정을 주도하고 생계를 이끌어가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성 가장 연구에서 여성가장의 83.2%가 경증의 우울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Shin, et al., 2001)에 비하여 낮았다. 이는 아이돌보미 여성이 생계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자기발전, 사회참여 등의 이유로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성 가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울점수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스트레스는 10점 중 3.61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5점 중 2.34점(Hong & Jung, 201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5점 중 2.49점(Koo, 2007) 등 다른 아동 보육 직종 근무자의 직무스트레스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유아교사, 보육교사 등 다른 보육 직종 근무자에 비하여 연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은 아이돌보미 여성들이 돌보는 아이의 수가 대부분 2명 이하인데 반하여 유아교사나 보육교사는 다수의 아동을 돌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아동 보육 직종근무자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겠으며, 이는 직종에 따른 건강관리 교육에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은 55점 중에서 44.92점으로 중간이상의 만족수준을 보였으며, 아이돌보미의 직무만족도가 중간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Hwang & Yun, 2012)와 유사하며, 직무만족이 중간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보육교사(Na, et al., 2013)에 비하여 직무만족은 높았다. 이는 아이돌보미 여성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고(Hwang & Yun, 2012),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이돌보미 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Yoon & Chung, 2008)와 유사하며,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Hong & Jung, 2013)와도 유사하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은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증가하므로(Schudrich, et al.,

2012), 아동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 증진을 통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질적인 보육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가정내 아동 돌봄제공자들은 높은 스트레스로 이직하려 하고(Todd & Deery-Schmitt, 1996),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Kobayashi & Takeuchi, 2002) 지속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경험하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이에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Kim, 2011).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 향상을 도모하고, 돌봄 아동들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지지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활동 여성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아이돌보미 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직무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궁극적으로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중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지역사회 건강지원센터와 비영리 및 영리단체가 아이돌보미 여성의 직무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아이돌보미 여성이 아동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Bang, K. S., Chae, S. M., & Park, S. H. (2011). Depression, health status, and parenting stress of caregivers of children in poverty.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4(2), 55-61.

Byun, M. H., Kang, K. J., & Chung, H. J. (2007). Evaluation the childcarer (IDOLBOMI) demonstration service and policy directio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1(2), 67-83.

Duffy, M. E. (1995).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behaviors of divorced 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2(3-4), 1-12. http://dx.doi.org/10.1300/J087v22n03_01

Hantrais, L. (2004). "Family diversification", *Family policy matters, responding to family change in Europe*. Bristol, UK: The Policy Press.

Headquarters for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2009). *2009 Child care support project a Results report*.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ng, K. H., & Jung, H. J. (2013). Effect of preschool teacher's job stress and depression on burnou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 Education*, 9(1), 263-280.

Hwang, H. S., & Yun, M. J. (2012).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child care helpers in seoul c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4), 63-71.

Jang, E. J., & Lee, S. H. (2009).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day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7(1), 69-84.

Jung, I. K., Kwak, D. I., Shin, D. K., Lee, M. S., Lee, H. S., & Kim, J. Y. (1997).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6(1), 103-112.

Jung, S. H., & Kim, J. H. (2013). The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ild-care service provider'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14(2), 275-304.

Kim, H. J., & Park, Y. S. (1997). Determinants of health-promoting behavior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4, 283-300.

Kim, S. H. (2011).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Focusing on activities of people who provide childcar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4), 19-41.

Kobayashi, F., & Takeuchi, K. (2002). Stress management in European countries and U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44(1), 1-5.

Koo, E. M. (2007). A study on health perceptions, health promoting lifestyles and job stress of child car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4), 97-113.

- Lee, G. J., Won, J. S., Im, S. B., Kim, S. A., Kim, S. J., Lee, S., et al. (2011). *Psychiatric nursing*, Paju: Soomoonasa.
- Lee, S. M. & Kim S. M. (2011). A basic study on public nanny servic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4), 51-65.
- Lee, G. J. & Chung, K. (2012) Childcare service providers' care experience and their meanings of social care, *Korean of Journal Child Care and Education*, 73, 419-441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Outline of child care service in 2013*.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Moses, T. (2000). Why people choose to be residential child care workers. *Child and Youth Care Forum*, 29, 113-126.
- Na, S. S., Gu, S. Y., & Park, Y. R. (2013). A study on childcare teachers' health status and job satisfaction in childcare center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14(3), 307-328.
-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1956).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Dekalb, Illinoi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Park, M. S. (2002). The relationship of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ith somatic symptoms, family related stress, spousal support and sexual satisfaction in the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1, 33-42.
- Schudrich, W., Auerbach, C., Liu, J., Fernandes, G., McGowan, B., & Claiborne, N. (2012). Factors impacting intention to level in social workers and child care workers employed at voluntary agenc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84-90.
- Shin, Y. S., Choi, S. O., & Kim, S. N. (2001). A study of depress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n matriarch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 44-55.
- Song, E. K., & Son, Y. J. (2011). Impact of body mass index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n depression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the commun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376-385.
- Statistics Korea. (2010).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Daeje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Todd, C. M., & Deery-Schmitt, D. M. (1996). Factors affecting turnover among family child care providers: A longitudinal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351-376.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 Leirer, V. O.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y Research*, 17, 37-49.
- Yoo, K. S. (2012). The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care helpe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 341-353.
- Yoon, H. M., & Chung, K. J. (2008). Effects of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n preschool teachers' job satisfaction. *Journal of Human Ecology*, 12(1), 81-95.

Impact of Perceived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among Child Care Providers

Lee, Young-Ran¹⁾ · Park, Sun-Nam²⁾ · Chu, Min Sun²⁾

1)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Republic of Korea

2) Associate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Republic of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erceived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among child care providers. **Methods:** Data were from a convenient sample of 154 child care providers wit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July 6th to September 26th, 2013.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on SPSS WIN 18.0. **Results:** Child care providers had above medium degree of perceived health status, low degree of depression, low degree of job stress and above medium degree of job satisfaction. Predictive factors of job satisfaction among child care providers included job stress(Adj.R²=.216, β =-.425, p <.001).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needs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among child care providers. Exploration of strategies to reduce the job stress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of the job satisfaction.

Key words : Child care, Depression, Health status, Job satisfaction, Stres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Sun-Nam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ro, Seodaemoon-Gu, Seoul 120-742, Korea

Tel: 82-2-2287-1738 Fax: 82-2-395-8018 E-mail: nam4868@naver.com